



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聞

발행인 金 澄 主 任 鄭 大 然
편집국장 高 榮 哲 편집장 任 尚 紫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1번지
전화: (직) 54-2278, 2279
인쇄: 한라일보사

제431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등록번호 라 2497 호]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The Che-dai Shinmun

1991년 10월 29일 화요일

1

차기 총학생회장 당선 확정 윤철수학우 사대·공대·자연대·동연등서도 무투표 당선 농대, 3개조 입후보 등록 마쳐... 경쟁치열

최근 교육부가 다가오는 학생회장 선거를 앞두고 '건전한 학생회'구성의 지침을 일부 대학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져 후보자경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92학년도 제8대 총학생회장선거가 윤철수(무역3)·홍상범(화학3)학우조가 단독 출마해 85년 총학생회 부활이후 처음으로 무투표 당선 기록을 세우게 됐다.

지난 10월28일까지 각 자치기구 정·부회장 입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동아리연합회·사범대·공과대·자연대 등에서는 학생회장 입후보자들이 단독 출마해 사실상 당선 확정 됐으며, 인문대등 5개기구가 경선을 벌이게 됐다.

각 자치기구별 정·부회장 입후보자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변 정:김기석(행정3) 부:김수경(법3)
▲경상대
△기호1번 정:김용수(경영2) 부:김영이(관경2) △기호2번 정:좌용철(회계2) 부:김현진(경제2)
▲사범대
△정:강민갑(국교3) 부:김은정(영교2)
▲농과대
△기호1번 정:고동환(농학3) 부:김광현(축산2) △기호2번 정:김관택(농화학3) 부:김상현(축산3) △기호3번 정:손정현(원예3) 부:소영권(농화학3)
▲해양과학대
△기호1번 정:김창현(어업2) 부:문필성(중식3) △기호2번 정:김기현(해항공3) 부:변정익(중식2)
▲자연과학대
△정:김민보(물리3) 부:백

수진(생물2)
▲공과대
△정:김동원(정보공3) 부:양방준(기관공2)
농과대인 경우는 3개조가 입후보해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선을 벌이게 되는 각 단대학생회는 오는 11월4일 유세를 갖고 11월6일 각 단대별로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해양과학대 정·부회장 입후보자 등록마감일은 31일로 연기됐는데, 이에 따라 11월6일 유세를 갖고 8일 투표를 실시한다. 총학생회회는 10월30일까지 정·부회장 입후보등록을 받고 있으며, 29일 현재 총학생회에는 정:이영진(국교3)·부:임희정(수교2)학우가 입후보했다.

및 유구를 조사하여, 차후 보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4천여평에 이르는 유물산포지에 대한 발굴조사중 파괴된 패총 3군데중 한지점을 발굴하고, 그곳에서 AD0~AD2백년으로 추정되는 삼각형 점토피토기, 철촉, 골촉, 도자기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됐다.

또한, 제주시로부터 용역의뢰를 받아 8월20일부터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던 관덕궁전역에 대한 지표조사는 당초 보다 한달가량이 늦어진 9월13일부터 12월3일까지 발굴작업 기간으로 잡고 발굴작수에 들어갔다.

발굴조사중이던 지난 10월 15일에는 관덕궁원 부지내에 돌하르방 제1기가 묻혀있다는 제보를 받고 매장유물 확인 작업에 나섰으나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발굴조사지역의 한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는 유적의 전체적인 규모와 물을 잡는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20일 정도 지나야 전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선사시대 유물 다량 발굴

박물관팀 중달리 패총지대서

박물관(관장 강동원)은 지난 9월9일부터 9월20일까지 실시된 중달리 지미봉과 두산봉사이에 경작지 및 임야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해안도로 공사로 인해 파괴된 선사시대 유물산포지 및 패총(조개무지)에 대한 유물

다. 발굴조사는 진행중에 있다.

김태현학우 은메달
전국육상경기대회서

제46회 전국남녀대학 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우리학교 김태현(체육 1)학우가 은메달을 따냈다.

11월중 학사일정
△수업주수 2/3선=11월2일 △석사학위청구논문본심사=11월4일~9일 △박사학위청구논문 본심사=11월11일~16일 △총학생회장 선거=11월14일



특정법추진 배경정취
민중당 특정법문제 진상조사단이 우리 학교를 방문, 29일 오후1시부터 본관 회의실에서 교수들을 로부터 반대 의견을 듣고 있다.

민주당 특별법문제 진상조사단 내도 교수·학우들 만나 문제점 청취 제총협 11월2일부터 '법' 제정 반대 위해 상경투쟁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문제 현지 조사단(단장:박영숙 최고위원) 20여명(국회의원 7명)이 10월28일 내도해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1월2일에는 범도민회에 제2차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범도민회의 한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월20일에 이어 전개되는 이번의 상경투쟁은 오는 11월2일 서울에서 '반도민적 제주특별법 특별법제정 반대 서울지역대책위원회(대표 전운형 홍익대학교수)' 주최로 '반도민적 제주특별법 특별법제정 반대대회'가 홍사단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대회에서 열릴 '반도민적 제주특별법 특별법제정 반대대회'가 홍사단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대회에서 열릴 '반도민적 제주특별법 특별법제정 반대대회'가 홍사단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중당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문제 현지조사단은 28일 범도민의 관계자등과 접촉한데 이어 29일 우리학교를 방문 교수와 학생들을 만나 △제1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제2차 종합개발 계획중 농어촌 대책과 환경보전대책 △대통령지시사항의 세부내용 △특별법 추진 경위, △학계의 대안등을 조사했다.

제총협에서는 29일 학교를 방문한 조사단에게 특별법제정 반대 투쟁의 정당성에 대해 민중당이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민주당국회의원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범도민회 주최 제3차 범도민권리대회도 11월중 열릴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로동신문'등 공산권 자료 열람 가능

도서관특수자료실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자료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간에는 특수자료실 이용 절차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까다롭고 학우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책임자에 의하면 특수자료실 이용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도서관출입증을 제시하고 열람신청서를 작성하면 누구나 특수자료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특수자료실에는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에 관한 자료 35종 1백44권 정도가 비치되어 있고 또한 북한사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로동신문'도 비치되어 있는데 특수자료실에 비치된 서적 및 자료의 대출은 물론 복사도 일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학원 대청소 실시
10월31일 오후4시

▲인권복지위원회(위원장 양성봉 통신공4) 주최 '학원 대청소' 10월31일 오후4시 △청소구역:본관 주변 학생회관 화장실, 교문앞, 주차장 주변.

'91 제주대학교 연보' 발간

연구활동 및 대학시설 현황등 수록

'91제주대학교 연보'가 10월1일자로 기획설(실장 부단장 행정학과 교수)에서 발간됐다.

대학의 각종 중요통계자료를 체계화하고 연간 주요 활동 실적을 정리수첩함으로써 대학의 교육과 연구활동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학사운영의 효율성제고 및 대학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

하에 발간된 이 연보에는 △1990학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요지 △주요 교육통계 대비표 △대학개황 △1990학년도 학사운영 개요 △대학과 대학원 학사업무 현황 △교직원명단 △대학시설 현황 △재정상태 △대학생활과 대학문화 △연구활동내역 △부속시설 설치특적 등이 실려 있다.

제11회 백록학술상 오는 31일 마감

초봄, 어린 모판에서 조심스럽게 가려 한 포기 한 포기를 줄 맞춰 심고, 물 조절에 하늘 쳐다보며 날씨 걱정, 유월 땀방에 가뭄일가, 장마태풍에 쓰러지지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애 설 틈 없었던 농부. 병충해 입을까 약뿌리고 잡초 뽑아가며 자식 다루듯이 꼼꼼하게 기른 벼이삭. 이제, 다 자라서 고개 숙일 줄 아는 벼는 농부의 손길에 몇 번 스쳤으며 흘린 땀은 얼마나 달가? '뿌린만큼 거둔다'합니다. 자기가 거둔 수확을 위해 얼마의 노력과 정성을 쏟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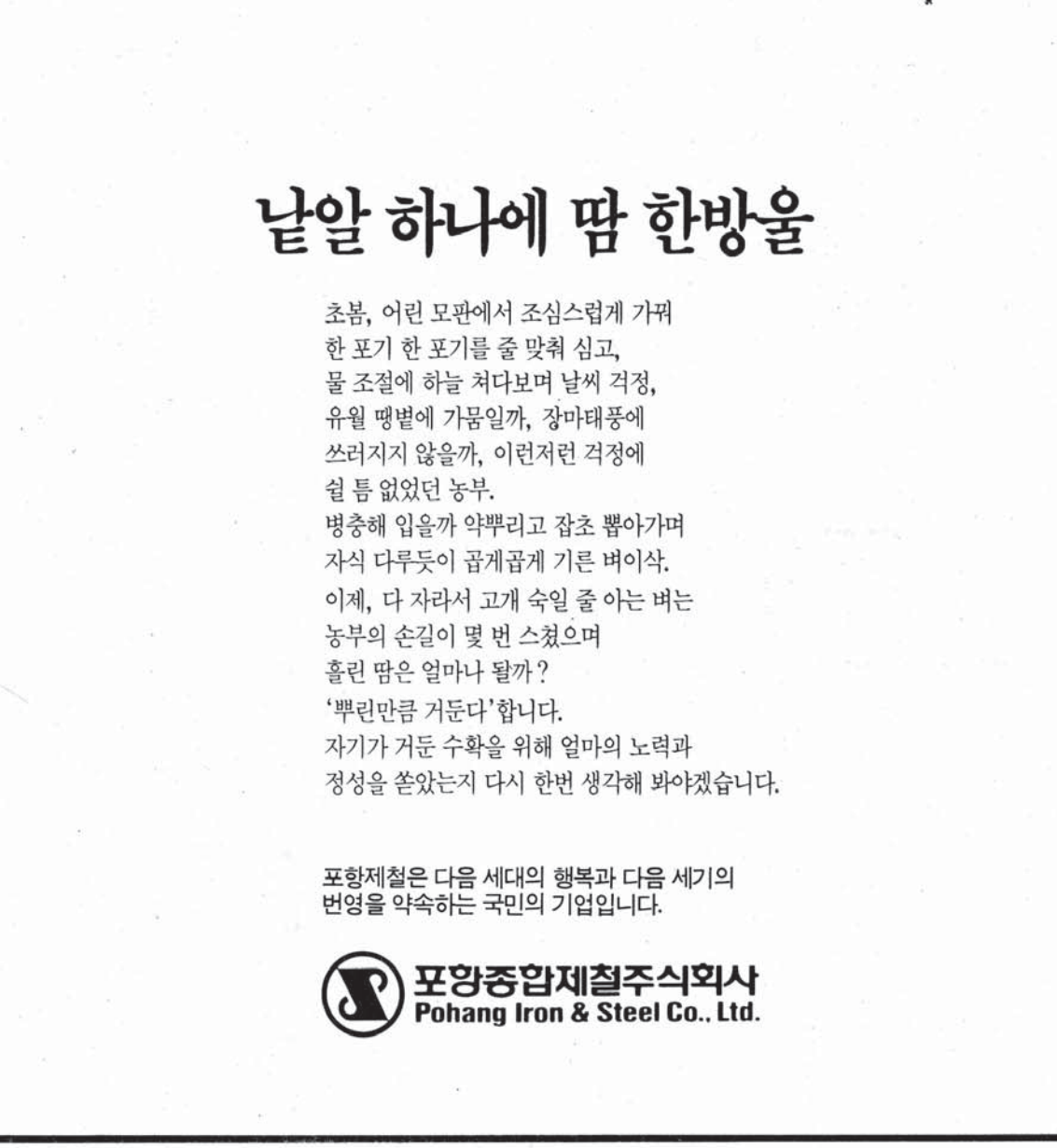
날알 하나에 땀 한방울

포항제철은 다음 세대의 행복과 다음 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제철은 다음 세대의 행복과 다음 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제철은 다음 세대의 행복과 다음 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POSCO 메세지 7면화면



社說

‘대학평가제’에 대한 우려

대학의 질적 수준과 연구실적, 봉사활동, 학생, 교직원, 시설 등 교육여건을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매겨 순위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두는 ‘대학평가인정제’가 물리학과와 전자공학과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의 시안에 의하면 교육부가 선정하는 특정학과에 대해 설치대학 별로 학과의 목표, 교육과정, 교수, 시설 및 설비, 경영 및 재정, 6개 영역 총 93개 항목에 걸친 학사운영실태를 대학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와 현지방문을 통해 평가, ‘우수’, ‘양호’, ‘미흡’의 3등급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1차년도에는 물리학과가 설치된 74개 대학(국립 19, 사립 55)과 전자공학과가 설치된 59개 대학(국립 18, 사립 41)이 평가인정제의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다.

평가영역별 배점은 학부(3배20점), 대학원(1배80점) 평가총점 5배점 중 교수 1배20점, 시설설비 1배점, 교육과정 1배점, 학생 75점, 경영재정 65점, 학과목표 40점으로 구성된다.

대학교육심의회는 대학교육협의회의 최종평가를 심사해 우수대학을 선정, 공개하고 교육부에 통보하며 교육부는 이를 행정·재정지원과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하는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대학평가인정제는 영국의 경우 1백여년전부터, 미국은 70여년전부터 시행되어 왔고 일본도 1949년부터, 필리핀은 50년대부터 도입, 시행해온 제도를 ‘각 대학과 학과의 제반 교육여건과 실적을 종합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대학평가를 위한 자율적 노력을 촉진시키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대학에서 평가인정제를 받게 될 물리학과는 84년도에 설치되었고 대학원 석사과정이 90년도 개설되어 있다. 교수는 6명이며 실험기자재는 모두 51종 92점인 확보되어 기준치의 약 40% 수준이다. 또 졸업생의 취업현황을 보면 총 졸업생 87명 중 공무원이 9명, 대학원 진학 8명, 간사 8명, 금융업 3명, 기타 26명으로 취업률 62%를 나타내고 있다.

대학평가인정제가 효율적인 대학관리를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관리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재정적 차등에만 역점을 두지 말고 ‘미흡’판정을 받는 소위 부실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다. 또한 교수 확보, 시설, 재정 등 열세인 대학을 우선 일선 수준으로 끌어 올린 다음 이 대학평가인정제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평가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정착되고 소기의 목적을 거두려면 무엇보다 대학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 대학이 성실한 자기진단을 위해 자체평가에 대해 얼마만큼 긍정성을 가지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갖느냐가 대학평가인정제 성패의 관건이라 하겠다.

본 대학은 도내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로서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 지방화 시대에 따른 대학교로서의 역할수행을 더욱 확대해야 할 시점에서 진솔한 대학자체평가에 기초하여 학문연구, 교육과 사회봉사 등 대학의 3대 기능의 균형적 발전을 꾀해 나가야 하겠다.

□ 함께 생각해 봅시다(2) - 대학평가제 대상학과 실태

물리·전자 기자재 확보율 20% 밖에 안돼
학교당국,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에 주력해야

교육부가 지난 9월23일 발표한 ‘대학평가인정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일차적으로 자연과학의 기초학문분야인 물리학과와 응용과학분야인 전자공학과에 대한 학과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약조간은 학부들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물리학과와 김민보(3) 교수는 “기자재가 부족해 형식적인 실험으로 때우거나 그난 이론강의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 학과가 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는 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반적으로 그 여건이 좋지 못하다. 현재 이들 두 학과의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은 20~30% 미만으로 교육부의 시설설치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자공학과에서 학원자주화투쟁시에 강하게 표출된 불만사항 가운데 실험실습기자재 확보문제가 포함됐던 것을 감안한다면 질적효과면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말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가의 기자재는 구입이 쉽지 않을 뿐더러 매년 지원되는 국고 8~9백만원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자재 확보율이 20% 미만인 전자공학과 역시 물리학과와 별다를 바 없다.

학과 관계자의 의견에 의하면 “교과과정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이 실험실습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자공학과에서 학원자주화투쟁시에 강하게 표출된 불만사항 가운데 실험실습기자재 확보문제가 포함됐던 것을 감안한다면 질적효과면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말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가의 기자재는 구입이 쉽지 않을 뿐더러 매년 지원되는 국고 8~9백만원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자재 구입비용은 외국차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외국차관 지원도 우리나라가 95년 이후 IBRD 차관 수혜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정상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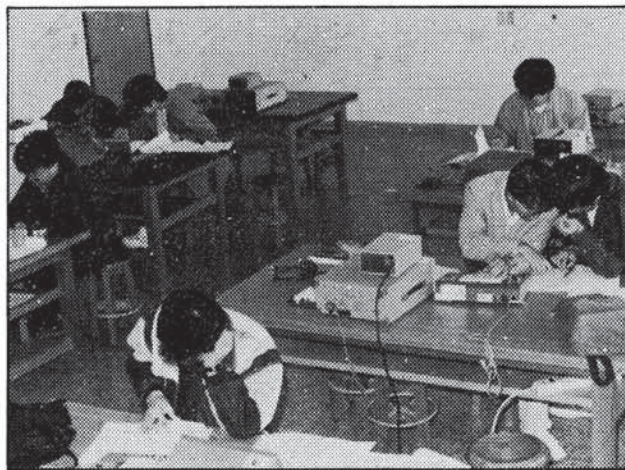
93년 평가항목 가운데는 교수와 관련한 교수처우문제, 연구실적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수구급을 살펴보면 물리학과가 6명(교수 2명, 학예비 4명)이고, 전자공학과는 5명(“=1명25)으로 이들 대부분은 아직 연구경력이 짧은 젊은 교수진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두학과 모두 배출한 졸업생도 적고, 이들의 취업도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대학원 진학을 제외하면 도내에서 전공을 살린 취업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도 이같은 어려움은 별로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학기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 전자공학과는 경우를 들면 국공립을 마친 학생들의 복학과 더불어 취업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물리학과와 홍성락(자연과학대학장)교수는 “설치연도가 앞선 학과는 상대적으로



◇ 현재 물리·전자공학과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은 20~30% 미만으로 교육부의 시설설치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적으로 교수·기자재 확보율이 우리보다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점수가 낮은 대학은 오히려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비로소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대학평가인정제 실시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립대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 또는 ‘기부에 지나지 않는다’ 등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 온 국립대에 대해 이제와서 ‘상대가 왜 이러냐’는 식의 나무랄대는 모순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모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96년까지 전국 29개 국립대에 대한 단계적인 ‘특수법인화’가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수법인화가 될 경우 국립대도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물리·전자공 두학과 외에도 시설면에서 부진한 국립지방대인 우리학교는 그 어려움이 더욱 더 가중될 것이 거의 분명하다.

평가 후 점수가 낮은 대학에 대해 차등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앞으로 실시될 대학평가인정제는 이처럼 부실한 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에 자극을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불합리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당국과 대상학과에서도 안이한 자세에서 탈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양원철 기자]



교수동정

▲오윤유(생물학과)교수·오석현(물리학과)교수·김문홍(물리학과)교수·이희자(물리학과)교수·조교수·김세제(물리학과)교수·전임강사= 지난 10월25일과 26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생물과학회 제46회 학술발표대회에 참석.

▲김정숙(가정관리학과)전임강사=10월26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대한가정학회 제44차 정기총회(주제: 가정학과 사회윤리-실천적방안)에 참석.

▲고성준(국민윤리교육과)부교수=지난 10월25일 오리엔탈호텔 2층 대회의장에서 있었던 제주국제회의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남북한관계, 그리고 제주의 미래’로 주제발표.

▲양영철(행정학과)조교수=지난 10월25일 오리엔탈호텔 2층 대회의장에서 있었던 제주국제회의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평화의 섬을 위한 제언’으로 주제발표.

▲고남욱(경제학과)교수·강지용(농업경제학과)부교수=오는 10월31일부터 11월5일까지 일본 대관시 경제법과대학에서 ‘동아시아에 있는

양성통 통공4에서 지난 10월22일 발간됐다.

이번 『참주』지에는 ‘학원자주화 투쟁-등록금에 대하여’, ‘인근복지위원회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 등이 실려 있다.

총동창회지 『백록담』

좌담·논문·화보 등 실려

우리학교 총동창회(회장 양성우 법5)에서는 지난 10월28일 총동창회지 『백록담』 제2집을 펴냈다.

이번에 펴낸 제2집에는 ‘제주대학교 총동창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주제의 특집좌담을 비롯하여 ‘총동창회 장학재단 설립의 전말’, ‘김정숙 부회장 추모특집’, 졸업생들의 대학생활을 회고한 ‘나의 대학생활’ 등을 다뤘다.

또 ‘노인복지의 행정체계와 조직’이란 주제의 논문은 단 ‘사건으로 보는 동창회의 발자취’를 화보로 실고 있다. 그의 동문들의 사·시·수필 등 제주대학교 총동창회지, 총동창회 장학재단 정관, 제14회 총동창회 임원 현황 등이 실려 있다.

사회학과 『진익의 소리』

▲『진익의 소리』제15호가 지난 10월28일 사회학과 학생회(회장 김미숙 3)에서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91학년도 과 학생회 사립평가에 관한 설문지 조사결과’, ‘사회조사의 단계’ 등의 글이 실려 있다.

세미나·강연

‘...수산업 현황...’

해양학과 주최

▲‘우리나라 수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인공전(국립수산진흥원 제주지원소장)씨 특강이 해양학과(학과장 이준배 조교수)주최로 10월29일 오전 10시 해양과학대 세미나실에서 있었다.

학과 소식

미술학과 ‘아라미미술제’

초청강연·전시회 등

▲미술학과학생회(회장 김성훈 조3) 주최 제1회 ‘아라미미술제’가 오는 11월 4·5일 양일간 법정대중강당 및 소문동장 등지에서 열린다.

△4일:초청강연(주제:우리시대 민족미술의 논리와 전망, 연사:원광대 목포대교수·미술평론가 12시 법정대중강당)/설치·행위미술 전시(학내전, 전경, 교내 곳곳)/노래발표 ‘섬에서’(5시 법정대중강당)

△5일:좋은 영화보기(‘부활의 노래’ ‘까미유 끌로델’ 11시 3345강의실)/노래자랑(4시 법정대중강당)/예쁜 싸이론테스트

농학과 ‘농학인의 날’

추수감사제 등 열려

▲농학과 학생회(회장 황기봉3)주최 ‘농학인의 날’이 오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부속농장 등지에서 열

린다. 이번 행사에는 △31일 추수감사제를 비롯 △1일 농학인의 밤이 있을 예정이다.

생물학과 동문 체육대회

▲생물학과학생회(회장:김충훈3)주최 ‘제2회 동문체육대회’가 지난 10월20일 소문동장에서 있었다.

사회학과 정기총회

▲사회학과 학생회(회장 김미숙3) 정기총회

△일시:10월31일 12시 △장소:인문대학 세미나실 △인원:92학년도 학생회장 선출 및 91학년도 2학기 상반기 결산보고

공연·전시

미술학과 ‘91세대미전’

‘졸업작품전’도 열려

▲미술학과 주최 제19회 제대미전 겸 ‘제2회 졸업작품전시회’

△장소:문예회관 전시실, 소강당 세종미술관 △일시:11월1일~7일

한울회 ‘제10회 서예전’

▲한울회 주최 ‘제10회 서예전’

△일시:10월28일~30일 △장소:여학생휴게실

카톨릭회 ‘민중과 교회’

▲카톨릭 학생회 주최 ‘91 탈리아를행사 마당극 ‘민중과 교회’

△일시:11월1일 △장소:민주광장(오후 1시) 카톨릭회관(오후 6시)

호우회 ‘제3회 공연’

▲호우회(회장 이철철 통신공2) 중점반의 ‘제3회 정기공연’이 10월27일 오후4시 7시 두차례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있었다.

이날 공연에서는 ‘가보고 싶어요’ 등 10여곡이 선보였다.

게시판

학칙시행세칙 개정

환경연구소 신설 등

△제주대학교규칙 제234호 제주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4조 제8호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제주도속산연구소’→ ‘제주대학교 농과대학농과대학연구소’로 명칭변경

제주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4조 제19호에 의거 제주대학교 환경연구소 신설

△제주대학교규칙 제235호 제주대학교 환경연구소 규정 제정(총11조) △시행일:10월17일

금요영화 감상회

11월1일=“나의 원망”

시간=매주 금요일 오후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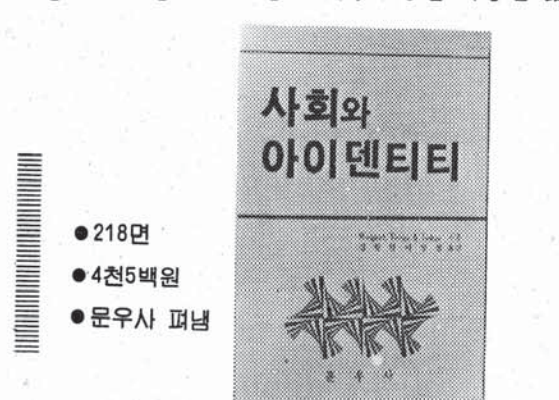
장소=어학연구소(사법대2층)

消大漫評



사회와 아이덴티티

Weigert, Teitge & Teitge 지음/김정원·이상철 옮김



●218면
●4천5백원
●문우사 펴냄

제1부 아이덴티티의 근원과 이론에 대한 접근

제1장 아이덴티티:사회학적 심리학내의 아이덴티티의 출현

제2장 사회학적 심리학과 아이덴티티이론:제안적인 소논문

제2부 아이덴티티의 이론의 적용과 확대 및 사회에의 적용

제3장 몸의 아이덴티티 이론의 적용:성(性) 아이덴티티

제4장 몸을 넘어서 아이덴티티 이론의 확대:출생전 및 사후의 아이덴티티

제5장 다원적 사회에서의 아이덴티티

중요한 것들이 없었어? ... 1년후엔 졸업인데...
---내가 컴퓨터전문가가 된다면...
---내가 전산요원이 된다면?!

취업률이 높다!
컴퓨터라...
오래된 만능요령고...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은 지금 즉시 여기로 연락주시요.

단기간내합격을 위한
"정보처리 기사자격증특강!"

종로컴퓨터학원
〈병원앞 버스정류소〉
☎ 52-9443

새로운 커피문화를 창조하는 - **Esperer**

커피문화의 신선한 충격
Esperer coffee shop제주에 상륙
엄선된 원두와 뛰어난 향

커피의 세대교체 선언
Esperer제주점 탄생
이태리, 미국, 브라질, 유럽의 커피맛을 이제 제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커피의 품격주의를 선언한 Esperer 이 가을
Esperer와 당신과의 만남은 또 하나의 자연입니다.

〈남·여직원, 아르바이트생 모집〉

새로운 커피문화를 창조하는

COFFEE PLAZA 에스페레
SINCE 1990

☎ 58-0053~4

아라체전, 단대체전보다 참석률 저조 존폐여부 심각하게 논의해 봐야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통일 단결 총학생회 주최로 아라체전이 열렸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91아라체전'은 많은 기대감으로 나라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단대 대동들이 보다는 더 크고 더 활기차고 더 많은 학우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리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아라체전 역시 다른 행사와 별 차이가 없었다. 많은 프로그램과 홍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경기에 참석하는 숫자는 한정돼 있었다. 집행부와 선수들, 그 이외에 몇몇 관심있는 학우들, 아라체전으로 인해 많은 수입이 유급폐지인지를 몰라도 아침에 끼리끼리 모여 내려가는 학우들이 눈에 띄었고 언제나 북적거리는 민주 광장에도 족구하는 선수

들과 구경꾼 이외에는 평상시 보다 사람들이 덜 북적거렸다. 체육관에서 열린 배구 시합도 별 차이는 없었다. 다른 경기보다 구경꾼이 많아 약간 활기를 띠긴 했지만 단대별로 치른 경기치고는 그 숫자도 너무 적었다. 응원단 수가 겨우 한 학과 학생수 정도였다. 이렇게 학우들의 참석률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일까? 나름대로의 생각으로는 이렇다.

아라체전이 전 학우들의 체전이 아니고 행사내용으로 봐서 몇몇 선수들의 체전이라는 것.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는 집행부의 체전이라는 것. 또한 토요일이 겹쳐 감이 없는 학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 처음부터 올라오지 않아 토요일은 거의 학생들의 참석이 없다는 것 등이다. 아라체전은 아라전 전 학과가 참석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기대를 접고 아라체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할 것이다.

(현미월 농업경제학과)

비난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면서 자기의 생활을 해가게 올바른 지성인이 아닌가 하고 자문해 본 다. (이용철 국어국문학과)

교내 오토바이 질주 보행자 위협 심각

서울 여의도 광장의 살인 질주는 우리들을 경악케한 사건이었다.

이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제대내에서 오토바이와 차를 몰고 다니는 학우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우들 중에 가끔 보면 적정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는 행위를 접할 수 있다.

다. 연제인가, 아스팔트길을 거닐고 있는 학우들 사이로 오토바이가 뚝 지나가기도 하였다. 통학을 위해 아니면 기숙사에서 강의실까지 거리가 멀어 기숙생들이 시간 단축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 그러나 그 용도에서 벗어나 학교내 아스팔트길을 드라이브코스라 착각하고 주행을 일삼는 학우들을 보게 된다. 서로를 위해 안전운행을 하든지 필요의 것을 삼가게 불상사의 모면의 방도가 아닌가 싶다. 실제로 농대의 한 학우가 교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는 위의 내용과는 별개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통안전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한 예인것 같다.

(김동철 수의학과)

학우들을 보게 된다. 서로를 위해 안전운행을 하든지 필요의 것을 삼가게 불상사의 모면의 방도가 아닌가 싶다. 실제로 농대의 한 학우가 교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는 위의 내용과는 별개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통안전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한 예인것 같다.

(김동철 수의학과)

과제도서실 이용에 불편 많아 장서보완·도서 재배치 이뤄져야

2학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두달이 지났다. 그동안 이 글을 기고하고 싶었지만 중간고사로 인하여 이제야 이 글을 쓰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나날고도 여러학우들의 불평이 계속되고 있음을 느끼고 몇가지 적어보고자 한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서관 과제도서실에 관련된 것으로 과제도서실 도서배열의 문제이다. 방학 중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던 도서배열이 개장을 하고보니 재배열 돼 있다. 그러나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고 목록표도 더 잘 정리돼 있겠다' 하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목록표는 별반 중요하지 않은 주제(제목)들을 다루고

있었다. 하나의 문제에 관련된 책을 찾는 데 있어서도 전혀 목록과는 상관없는 데서 찾아야지만 찾겠다 하는 도서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도서관에 여간 불편할 뿐 아니라 자료 하나를 찾는 데도 책꽂이 옆의 목록표와는 무관하게 모든 책꽂이를 다 뒤져야 할 지경이다.

차라리 학내 전공학과와 관련시켜 도서를 배열시키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대학생이라면 한문책은 거처야 할 학문분야에 대한 책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연계열이나 공학쪽은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인문계열에 한해서 보면 철학이나 인류학 계통의 책이 너무

나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비단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까? 또한 여러 학우들의 불평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도서관이라면 가장 기초학문의 도서를 제대로 갖춰 놓는 게 최소한의 선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혜경 사회학과)

새신간

『섬은 기다리지 않는다』 작가의 고향 진도를 무대로 하여 펼쳐지는 이 소설에는 민속의 보고가 무진장으로 묻혀 있으며, 한과 멋, 기막힌 해학이 고단한 삶의 가락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

영화평 '수잔브링크의 아리랑'을 보고 경제성장 이면의 입양아문제 묘사

『한국은 돈 한푼 안 들이고 골치거리 사회문제인 고아와 기아문제를 아이수출이라는 특수산업으로 통해 연간 2천만 달러의 외화를 수입하고 있다』는 기사가 외국잡지에 실려 전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된 일이 있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총 10만여명의 아이를 해외로 입양해 '아이수출 1위국'이라는 영예(?)를 누려왔기 때문이다.

6·25전쟁의 참혹에서 가족을 잃고 굶주리는 전쟁고아를 구제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해외입양이,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외입양아 문제는 '수잔브링크'라는 입양아의 이야기가 지난 89년 11월27일 MBC TV "인간시대"에서 방영되면서 이를 '도사출

판 보고'에서 90년 6월 책으로 출판하는 한편, 영화로 상영되기에까지 이르러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 영화 '수잔브링크의 아리랑'은 60년대 당시 별안간 남편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여인이 다섯남매 중 막내 딸을 스웨덴으로 입양보낸후, 23년만에 미혼모 대학생으로 고국을 찾아온 딸과 우여곡절 끝에 상봉하는, 해외 입양아들의 아픔을 그린 실화이다.

네살짜리 어린아이 신유숙이 입양된후 겪는 아픔-사랑이 결핍된 유년시절, 양모의 학대, 두번째 결혼 자살 시도, 가출, 임신 등-이 이 영화의 소재가 된다.

울산과 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 고국에서 온 해외입양아 취재팀의 인터뷰에 응한 수잔은 방송을 통해 그

를 알아보고 연락한 친모와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된다. 스웨덴에서 생활하면서 갖은 고통을 당한 수잔 브링크가 두번째 자살을 기도했을 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버림받았다"는 말을 한다. 이는 그녀가 해외로 입양되면서 받은 부모와 민족으로부터의 배신, 입양된후 정신적 적응과 양모의 학대 등으로 견디다 못해 가출하는 아픔을 비롯, 사랑하던 사람과 친구로부터 견디기 힘든 배신을 당해 정신적 아픔을 호소한 말로서 보는 이로 하여금 심금을 울리게 한다.

해외입양 문제의 병목현실, 즉 해외 입양 알선단체의 비리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비롯, 수잔이 사랑했던 거리의 약사와 그녀의 여자친구가 수잔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사건을 너무 우연적으로 처리한 것과, 수잔이 종교에 귀의하게 된 뚜렷한 계기가 설정해 있지 않은 점 등 사건전개의 필연성이 결여된 장면이 자주 드러나는 것이 이 영화의 흠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신부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아리랑'을 부르며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수잔 브링크의 모습은 입양아들의 아픔을 절감하고 수잔을 비롯한 모든 입양아들을 우리와 같은 한국인임을 느끼게 하는 등 미학적 처리가 뛰어남을 볼 수 있다.

살기 어려워 자신의 핏줄을 다른나라에 보내야 했던 당시의 시대상과 아울러 외국에 차관까지 빌려줄 정도로 경제가 성장했으면서도 해외입양아의 줄은 그치지 않고 있다. 영화의 마지막에 주인공이 "한국에선 외제가구 외제승용차를 수입하고 한국에선 아이들을 수출해요"라고 한 말이 오늘날 사회 모순 현상에 대해 깊이 생각케끔 한다.

[김미진 記者]

풍물연습 과외시간에 했으면 대학까지 이기주의의 만연해선 곤란

합창 강의를 듣고 있노라던 어디에선가 큰 소리로 부르는 노랫소리와 장구나 쥘과리 등 우리고유의 전통악기 소리를 자주 들을 수가 있다.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고유의 문화양식을 계승한다고 해서 관심을 많았고,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감정이 사라졌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들려오는 그 소리가 이제는 같은 대학인임을 부끄럽게

지 한다. 스스로는 지성의 상징인 대학인임을 자칭하면서 권리만을 내세우려 할뿐, 지성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는 생각지도 않는 것 같다. 만일에 등교길이나 학교 길에 전통음악과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각 개인마다 뚜렷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드나들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사회가 자기편의 위주의 이기주의의 결함으로 흩어지고 해서 학내에까지 그런 풍조가 침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학인 모두가

이 그지. 일년전에는 3당통합으로 민자당이 라는 기령아를 만들어 내더니, 이번에는 스스로 과거모독죄를 뒤집어 쓰니, 헛소리만지껄이는 대표최고위원을 아무래도 우리가 나서서 그 심보를 단단히 고쳐주어야 할까보요.

○...주인을 찾습니다

학우들을 위한 자료실이 개관 이래로 파란만 날리는 꼴이되어 주인들을

주인을 찾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북한자료실이 개관 이래 단지 3명의 학우만이 다녀갔는데(교수는 현명도 없음) 그것도 목록만 훑어보고 가는 학생이 전부라 자료실 설치의의가 '도로미타불'될 위기.

물론 아직 북한자료실의 자료확보가 보잘것 없지만, 온 국민이 통일열기가 고조되는 이때에 말로만 '북한 바로알기운동'이라 할게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음은지.



○...대낮에 눈뜬 가로등
때아닌 대낮에 환히 켜있는 우리 학교 가로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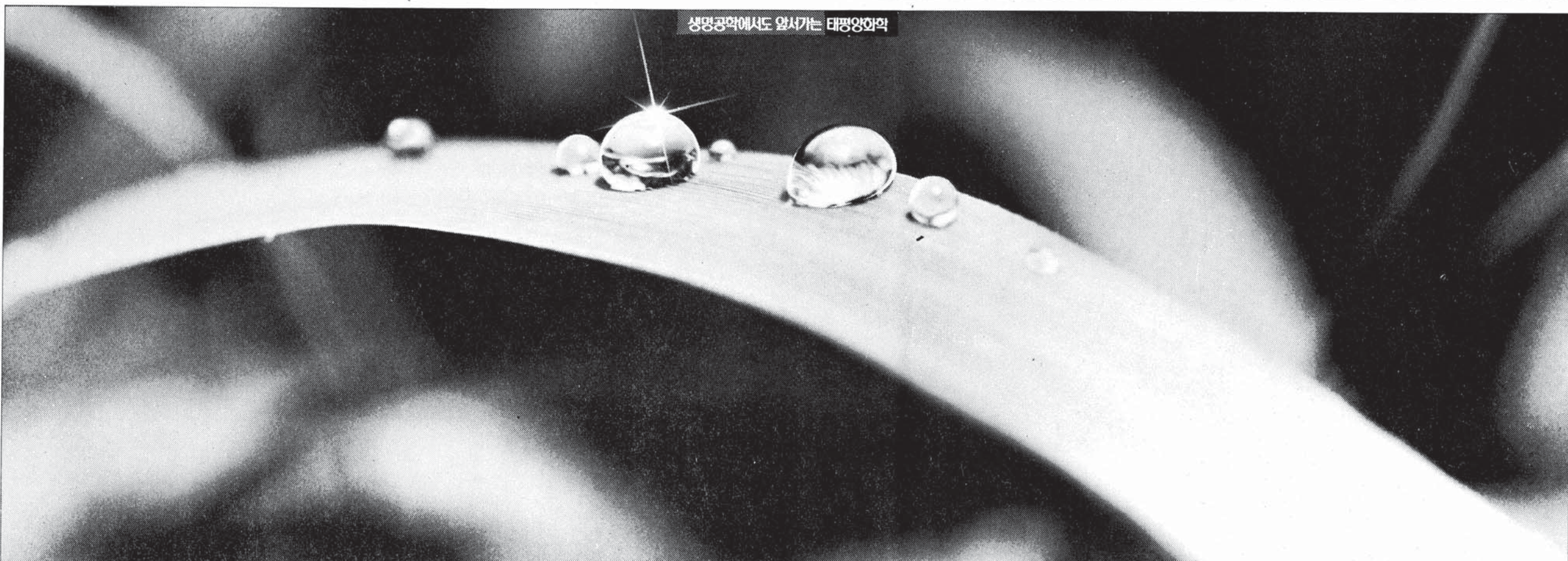
지난 25일에는 한낮에 교문에서 본관까지 가로등이 전부 켜져 있어, 장난끼있는 학우들이 '대낮에 분위기 잡을 일도 없는데 왜가로등 불빛이냐'는 등 오가는 이들이 의아해 했는 데.

담당하신 분이 가로등 점등을 잠깐 잊어버리신 것 같소이만, 앞으로 한순간의 방심으로 학교의 전력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 듯.

○...대표최고위원의 헛소리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여부를 제스스로 '확실히' 의심케하는 말을 했는 데.

지난 10월 21일 "자신이 야당을 했었기 때문에 절감했는데 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불행해진다"고 말한 것

생명공학에서도 앞서는 대평양화학



대자연의 순수한 입김으로 피어나는 이슬꽃—
이 순수함을 생각하며 화장품을 만듭니다.

대자연의 숨결로 맑고 깨끗한 새벽공기를 머금고 꽃잎에 맺히는 투명한 이슬꽃—그 맑고 투명한 이슬에는 순수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부도 이슬같이 항상 순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피부—화장품을 만드는 일은 바로 피부의 순수를 지키며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화장품을 만들면서도 순수한 이슬을 생각하고 그 순수함을 배우고 따르는 야모레—야모레의 모든 화장품은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대평양화학

야모레 순정은
17개 중합병원 피부과와
공동연구 개발된
보다 안전한 민감성 피부
전문화장품입니다.

